

KAIHATSU Yoshiaki

開発好明

카이하츠

요시아키



KAIHATSU Yoshiaki
開発好明
카이하츠 요시아키



政治家の家



政治家の家

福島市郊外 2012.3-

下記の招待状を日本の衆参議員 700名以上に送る。誰も住む事が出来なくなった場所が日本に存在している事が本当に悲しかった。もし中央で日本の現状も知らないまま、今も日本のエネルギー政策が経済優先で行なわれているとしたらと思うと、2012年に私は行動を起こ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だ。

ご休憩ご招待状

昨年の3月15日の原発の事故を受けて、様々な事が議論され実践されて来た事と思います。その今後の方針が私達市民にとってより良い未来へと続く決断をして頂くため、現地の空気を肌で感じて頂くために、現地入りされていない、政治家の皆さん限定の無料の休憩施設「政治家の家」をオープンさせて頂く事になりました。場所は、福島原発20キロ地点近くに位置しています。400メートル程で立ち入り禁止の警戒区域になります。

是非この機会に一度、南相馬市に入るために無人の飯館村を通りながら、福島の実状とそこで生活する地元の方々の思いをたった一日の機会ではありますが感じて頂けたらと思います。そして、日本の未来のエネルギー政策がより良い方向に進むために、この家が使われる事を心から願っています。

*この施設は、今後の原発問題の是非について考えて頂くため政治家の方のみの休息所とさせて頂きます。

*できれば、お一人でいらして下さい。無人となった飯館村、人口の減った相馬市を静かに体験して頂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ご希望の方は、管理者である開発好明(美術家)までメールにてご連絡ください。
kaihatsu@pp.ij4u.or.jp

開発の活動内容 <http://www.yoshiakikaihatsu.com/>
政治家の家(写真)
<http://www.yoshiakikaihatsu.com/index5.html>

住所:福島県南相馬市原町区益田西迫233(県道120号沿い)
注意:閉鎖エリアがありますので車のナビをお使いの方はご注意ください。

Politicians' Home

In the suburb of Fukushima (since March 2012)

"The invitation to the Politicians' Home as below were sent to over 7 hundreds of members of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Councilors. I was truly sad that there was the land in Japan where no one can live anymore. I thought I must act against it in 2012, given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wasn't aware of the actual situations and continued to manage the energy policy as it was, giving the priority to the economy".

An Invitation

After the nuclear reactor disasters on March 15 in 2011 many things were discussed in various aspects and put into action. In order that the politicians may think and decide the better direction for all of us and experience the actual situations in the critical site, I dared to start the Politicians' House as a resort facility for free, only for the politicians who never came to the place in situ. It is located in the 20km away from the Fukushima nuclear reactor. In another 400m forward, you will arrive at the restricted area where the evacuation order has been issued.

You are very encouraged to witness the Fukushima's reality and the thoughts of the residents in Minamisoma even for one day stay, after going through uninhabited lidate village.

I hope that the house may be useful for improving the Japan's energy policy in the future.

This house is available only for the politicians to think seriously about the nuclear issue.
Please visit alone, so that you may experience more the inhabited lidate village and deserted Soma city.

Those who want to visit the house are welcome to contact Yoshiaki Kaihatsu (artist) via email : kaihatsu@pp.ij4u.or.jp

About Kaihatsu's activities : <http://www.yoshiakikaihatsu.com/>
Politician's house photos : <http://www.yoshiakikaihatsu.com/index5.html>

Address ; 233 Masuda Nishisaku, Hara-machi, Minamisoma-shi, Fukushima (along Prefectural Route 120)
Warning : There is the barricaded area nearby, so don't be misguided by the car navigation system.

정치가의 집

후쿠시마시(福島市) 교외 2012.3-

이하의 초대장을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국회의원) 700명 이상에게 보낸다. 일본에 어느 누구도 살 수 없게 된 장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기 그지없었다. '혹시 중앙에서 일본의 현상태도 모른 채, 지금도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경제우선으로 행하고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니, 2012년 나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휴식 초대장

지난 해 3월 15일,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논의하고 실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그 방침의 결정에 있어 우리 시민에게 보다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결단을 해 주십사 하여, 현지에 오시지 않은 정치인 여러분을 한정으로 현지의 분위기를 직접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무료 휴식시설인 『정치가의 집』을 오픈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20km 떨어진 지점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곳은 400m 정도로 출입금지 경계구역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한번 미나미소우마시(南相馬市)에 들어가기 위해, 무인(無人)마을이 된 이타테 마을(飯館村)을 지나며 후쿠시마의 현황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단 하루의 기회이긴 하지만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미래 에너지 정책이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집이 사용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향후 원전문제의 옳고 그름에 대해 생각해 주십사 정치가분들만의 휴게소로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혼자서 와 주십시오. 무인 이 된 이타테 마을, 인구가 감소한 소마시(相馬市)를 조용히 체험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관리자인 카이하츠 요시아키(미술가)에게 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kaihatsu@pp.ij4u.or.jp

카이하츠의 활동 내용 <http://www.yoshiakikaihatsu.com/>
정치가의 집(사진)
<http://www.yoshiakikaihatsu.com/index5.html>

주소 :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마스다니시사쿠 233(120번 현도(県道)연선)
주의 : 폐쇄영역이 있으므로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시는 분은 주의해주시시오.





デイリリーアートサーカス

東北地区 2011-

トラックにアート作品を詰め込み西日本から東日本へ移動しながら行う展覧会。西日本、関東地域で募金活動を行い、その収益金は全て東日本大震災の被災地に寄付。

Daily-ly Art Circus

Tohoku District since 2011

It's a travelling exhibition along with a fundraising campaign. A truck loaded with the artworks travels from the west to the east within Japan and shows the exhibits in different places, and at the same time in the western Japan and Kanto district the donation is collected, and then in the eastern area all of the funding is given to the places damaged by the Earthquake.

Daily-ly Art Circus

동북 지구 2011년~

미술작품을 트럭에 실어 서일본에서 동일본으로 이동해가며 진행하는 전시회. 서일본, 관동지역에서 모금활동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은 전액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에 기부.



モグラTV

市原アートミックス 2014.3-5

屋外の空き地を畑へと作り替え、その中央に地下室を作り、会期中モグラの格好をした作者が、地域の方や展覧会関係者、アーティストを地下スタジオに招き、木曜日以外の毎日、生放送(Ustream)を行なった。地下室で連日行なわれたネットTVはU-streamを用いて配信され、何処からでも見る事ができた。

Mole TV

Ichihara Art × Mix March to May 2014

Converting the abandoned soil into the field and building a basement in its middle, Kaihatsu wore with a costume of mole invited people in the neighborhood, staff member involved in the exhibition and artists to the basement. They had a talk and diffused it via ustream everyday except Thursday. The broadcast from the basement were able to be seen wherever the internet environment was available

두더지 TV

이치하라(市原) ARTxMIX 2014년 3월~5월

옥외의 공터를 밭으로 전환하여 그 밭의 중앙에 지하실을 만들. 전시회 기간 중 두더지 차림을 한 작자(作者)가 지역주민과 전시회 관계자, 아티스트를 지하 스튜디오로 초대하여 매일(목요일 제외) 생방송(Ustream)을 진행함. 연일 지하실에서 진행한 인터넷 TV는 U-stream을 통해 방송되어 어디에서든 시청이 가능하였음.



100人先生

東京都 三宅島 2012-2014

「誰もが先生、誰もが生徒」を合言葉に、100名を目指して3ヶ月。島ならではの講座や島という閉ざされた環境を飛び越え世界と繋がった講座など、多種多様なアプローチで先生達に集まって頂きました。トータルで5ヶ月近く島に滞在しましたが、無事100人先生、100講座を達成。

100 teachers

Miyake Island in Tokyo prefecture 2012-2014

“Everybody is a teacher and everybody a pupil”. The goal is to organize a hundred of lecture with a hundred of teacher for only 3 months. The topics of lecture range from the island life to the global matters beyond the closed environment, while the teachers’ approach varied. Eventually after the 5 months residency, the hundred of lecture by the hundred of teacher were achieved successfully.

100인의 선생님

미야케도(三宅島) 2012-2014

‘누구나 선생님, 누구나 학생’을 표어로 100인을 목표로 3개월. 섬 특유의 강좌와 섬이라는 폐쇄된 환경을 뛰어넘어 세계와 이어진 강좌 등 다양한 강좌 방식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선생님들이 모여주셨습니다.

총 5개월 가까이 섬에 체류하였으나, 무사히 100인의 선생님, 100강좌를 달성.



100人先生 - 横浜の東アジア

BankART Studio NYK 横浜 2014

「100人先生で、なんだろう?」と思いますよね。今回は、様々なジャンルの講座やワークショップを100講座も行っちゃいます。そして、貴方の参加を待っています。「先生」というと大層ですが、自慢する程ではないけれど、考えてみたらちょっと「えっへん!」と思えるようなことならなんでもOKなのです! 自分では、大した事ではないと思っていた事が、他人と共有してみたら面白い事だったり、ちょっと不思議だなと調べてみたら歴史的大発見になったり。100人先生の魅力は、世間体など関係ない、「誰もが先生、誰もが生徒」になれる、新たな視点を持ち込んだ講座が豊富に行われるところです。この講座を通じて、横浜の地に子供から大人まで楽しめ、誰もが先生、生徒の立場を替えながら、新たなものへの興味や経験を深め、知識の共有と、文化が横浜から東アジアへと広がる事を期待しています。(開発好明)』



100 teachers

Why a 100 teachers? This time we are offering more than 100 courses and workshops covering a wide variety of genres. We are looking forward to your participation. And while this is a lot of teachers to speak of, it is no matter to boast about. Of course it's OK if you think to yourself "just hang on a minute". You might well feel that what you know isn't that special but if you share that experience with others it might well turn out to be more interesting and unusual than you imagined, and if you check it out further it might be a matter of a great historic discovery. The attraction of having 100 teachers is that there will be neither teachers nor students, appearances won't play any role and there will be ample occasion to encounter new perspectives. Thanks to these courses, Yokohama residents, adults and children alike, will be able to enjoy the experience while shifting roles from teacher to pupil, further deepening their interests in fresh experiences and sharing their knowledge, in the hope of spreading Yokohama's culture to their nearby East Asian neighbours

100인의 선생님 요코하마의 동아시아

100인의 선생님이란 뭐지? 라고 생각하시죠. 이번에는 다양한 장르의 강좌와 워크숍을 100강좌나 진행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 하면 거창하지만 뽐낼 정도는 아니라도 스스로 '뭐 이 정도라면 나도 잘 할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OK입니다! 자신에겐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인과 공유해 보면 실은 재미있는 일이거나, '좀 궁금한데' 하고 조사해보면 그것이 역사적 대발견이 되거나..... 100인의 선생님의 매력은 타인에 대한 체면이나 위신 등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선생님,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곳에서 새로운 시점을 가진 강좌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모두가 선생님, 학생의 입장을 바꿔가며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쌓아 지식의 공유와 문화가 요코하마에서 동아시아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島民謡先生 (彦坂晶子)



貝とり先生 (筑波昭一)



ジャックモイヤー先生 (浅沼存)



フィールドデッサン先生 (金澤文利)



韓国先生 (チェ・ソン)



パーカッション先生 (Kwon soon kuk)



味噌先生 (佐久間通)



スカリ先生



おみや芸術先生 (開発好明)



身体先生 (村田峰紀)



空気よめない先生 (坪倉良和)



応援先生 (開発好明)



未来郵便局

BankART Life 3 / 新・港村 横浜 2011

【未来郵便局からのメッセージ】

あなたの思い出を一年後のあなたに届けます。あなたの気持ちを一年後の友達に届けます。手紙は一年後にポストに投函され未来のあなたと友達に届きます。

Future Post Office

BankART Life 3 / Shin Minatomura Yokohama 2011

Message from Future Post Office

The Future Post Office delivers the mail to you in a year. Your message will arrive at your friend after a year. The mail will be posted on the date after one year for future you.

Postman : Yoshiaki Kaihatsu

미래 우체국

BankART Life 3 / 신·항촌 요코하마 2011

당신의 추억을 1년 뒤의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1년 뒤 친구에게 보내드립니다.

편지는 1년 뒤에 우체통에 넣어져 미래의 당신과 친구에게 보내집니다.

집배원 카이하츠 요시아키





チャペル ノイエナショナルギャラリー (ベルリン) / In Neue Nationalgalerie zu Berlin 2006



ヴェネチア・ビエンナーレ第9回国際建築展日本館「おたく：人格＝空間＝都市」2004 「オタクの部屋」開発好明、共同制作：齊藤環
 Otaku Room by Yoshiaki Kaihatsu + Tamaki Saitoh, Venice Biennale the 9th Architecture Exhibition Japan Pavilion In Italy 2004



BankART桜荘(横浜) / BankART Sakura Sou (Yokohama) 2010

発泡の家

発泡スチロールを用い、建築物のような構造体を制作。様々な都市で大きさも機能も変換しながら展開。

Styrofoam House

An architecture like construction using the styrofoam.
 It was built in different sizes and functions in many cities.

발포 스티로폼의 집

발포 스티로폼을 사용하여 건축물과 같은 구조체를 제작함. 여러 도시에서, 크기도 기능도 변환시켜가며 전개함.



都会生活者のためのオアシス

ゼクセルギャラリー 東京都渋谷 2004

ビルの一階にあるガラス張りのギャラリーでの発表。TV映像の和泉（オアシス）があり、清涼感のある水音が流れ、心地よい空間を提供。円形の腰掛けの下には人の顔のビデオが埋め込まれており、ときおり観客に話しかけるといってちょっとびっくりする仕掛けもある。

Oasis for Urbanist

Zexcel Gallery Shibuya Tokyo 2000

The installation was done in a glazed gallery space on the ground level. It consists of the video installation of a fountain (oasis) and the sound installation of running water, that gives you the relaxation and comfort. Under the circular stool there is also the video installation of a person's face, at times talking to the audience. It's a wake-up and playful piece.

도시 생활자 (生活者) 를 위한 오아시스

Zexel 갤러리, 도쿄도 시부야 2000년

빌딩 1층의 유리로 된 갤러리에서 발표. TV영상의 샘(오아시스)이 있고, 청량감 있는 물소리가 흘러 나오는 기분 좋은 공간을 제공함. 원형의 의자 아래에는 사람 얼굴이 나오는 비디오 영상을 설치하였으며, 가끔씩 관객에게 말을 거는 조금은 놀라운 장치도 있음.



ひとり民主主義

開発好明は、ひとり民主主義者である。

ひとりで行なうということと、民主主義という言葉は相反するように思えるが、開発はこの間ずっと、この相反するテーマに正面から取り組んできたといえよう。みんなを巻き込むような作品をつくりながらも基本的には淡々とひとりで作業を進め、決して運動体としての作品にはしない。あくまでも個人のささやかな営みとして、正義に対してアプローチし、規制に対してレジスタンスする。開発の最近のプロジェクト全てに、こういった「思想」が底流しているといえよう。

例えば、一年後に送られてくる郵便システムを構築した、「未来郵便局」は、未来への自分、友達との約束のプログラムだ。一年後、今の自分や友達とどういう信頼関係が結ばれているか。同じ気持ちで関わるができるかどうか、そうあって欲しいという気持ちが一年後まで封印される極めてデリケートな約束（＝民主主義）のプログラムだ。

『あなたの思い出を一年後のあなたに届けます。あなたの気持ちを一年後の友達に届けます。手紙は一年後にポストに投函され未来のあなたや友達に届きます。配達員　開発好明　2011』

福島原発 20キロ地点に掘建小屋をたて、宿泊の招待状を衆参議員 700名に送った「政治家の家」。『誰も住む事が出来なくなった場所が日本に存在している事が本当に悲しかった』と語る開発が、極めてストレートにアクションしたこのプロジェクトは、民主国家の代表者に対して、リアリティ(＝民主主義)を奮い起こさせる静かで孤独なプログラムだ。実際に宿泊したものはいなかったが、週刊ビックコミックスピリッツ『美味しんぼ』というメジャーなマンガで大きく取り上げられ、話題になった。

トラックにアート作品(様々な作家の作品)を詰め込み、西日本から東日本へ移動しながら行う展覧会「デイリリーアートサーカス」。4年間で都合 150日も往来した奇跡の美術館だ。地域で募金活動を行い、収益金は全て東日本大震災の被災地に寄付。この継続性(＝民主主義)は誰も真似できるものではない。ここでも開発のひとり民主主義が貫かれている。

「誰もが先生、誰もが生徒」を合言葉に、東京都の離島三宅島で行なわれた「100人先生」プロジェクト。先生と生徒、教える側と教えられる側の反転。選ばれた人間が選んだ人間を支配するだけの構造は民主主義ではない。いつでも主従は逆転(＝民主主義)する。この本質がこのプログラムの中には貫かれている。

空き地を畑へと転換させ、その中央に地下スタジオを作り、会期中モグラの格好をした作家が、地域や展覧会関係者を招き、連日生放送(ustream配信)を行なった「モグラTV」も極めて民主主義的なプログラムだ。放送局というパブリックな空間をモグラという動物の姿をかり、ユーモアやボトムアップ性を全面的に打ち出すことで、メディアのもつ権威性をはざ取り、原点の姿に引き戻す作業を行なっているともいえよう。ユーモア(＝民主主義)は開発さんのひとり民主主義作品に通底する財産だ。

詩人吉本隆明が戦前、軍部の台頭の中、戦争に巻き込まれていく人たちに対して、放った言葉(詩)は、今でも個人と民主主義の関係を痛いほど考えさせてくれる。

『ひとりっきりで耐えられないから
たくさんの一と手をつなぐというのは嘘だから
ひとりっきりで抗争できないから
たくさんの一と手をつなぐというのは卑怯だから
ぼくの孤独はほとんど極限に耐えられる
ぼくの肉体はほとんど苛酷に耐えられる
ぼくがたおれたらひとつの直接性がたおれる
もたれあうことをきらった反抗がたおれる』

民主主義とは、皆で手をつなぐことで生まれる運動体ではなく、たったひとりの具体的なアクション(作品)が、具体的に他人を動かし、連鎖反応を引き起こしていく現象だ。そういった意味で、開発好明のひとり民主主義は民主主義の本質を往くプロジェクトだといえよう。

池田 修 (BankART1929 代表)

1 人 (一人) 민주주의

카이하츠 요시아키는 1인 민주주의자다. 혼자서 행한다는 것과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상반되는 것 같으나, 카이하츠는 최근 내내 이 상반된 주제에 정면으로 맞서왔다고 할 수 있다. 모두를 끌어들이는 듯한 작품을 만들면서도 기본적으로 담담하게 혼자서 작업을 진행하며 결코 운동체로서의 작품으로 돌리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그마한 행위로써 정의에 대해 접근하며, 규제에 대해 저항한다. 카이하츠의 최근 프로젝트 전체에 이러한 ‘사상’ 이 흐르고 있다. 예를 들어 1년 뒤에 발송 받는 우편 시스템을 구축한 ‘미래우체국’ 은 미래의 나와 그리고 친구와의 약속 프로그램이다. 1년 후, 지금의 자신이나 친구와 어떠한 신뢰관계를 맺고 있을까? 같은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가능한가 어떠한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1년 뒤까지 봉인되는 지극히 미묘한 약속(=민주주의) 프로그램이다.

“당신의 추억을 1년 뒤의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1년 뒤 친구에게 보내드립니다. 편지는 1년 뒤에 우체통에 떨어져 미래의 당신과 친구에게 보내집니다.
집배원 카이하츠 요시아키 2011”

후쿠시마 원전 20Km 지점에는 호리타테코야' 를 세운 후, 700명의 중의원과 참의원에게 숙박 초대장을 보낸 ‘정치가의 집’ . “일본에 어느 누구도 살 수 없게 된 장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기 그지없었다.” 라고 이야기 한 카이하츠가 매우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긴 이 프로젝트는, 민주국가의 대표자에 대해 리얼리티(=민주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조용하고 고독한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숙박한 사람은 없으나 주간 빅코믹 스피릿² 의 ‘오이신보 (맛의 달인)’ 란 메이저급 만화에 큼지막하게 실려 화제가 되었다.

미술작품(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트럭에 실어, 서일본에서 동일본으로 이동하며 전시회를 진행한 ‘Daylily Art Circus’ . 4년간 도합 150일을 오간 기적의 미술관이다. 각 지역에서 모금활동을 진행하며 수익금 전액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에 기부하였다. 이러한 계속성(=민주주의)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다.

여기에서도 카이하츠의 1인 민주주의가 관철되어 있다.

‘누구나 선생님, 누구나 학생’ 을 표어로 도쿄도의 외딴 섬 미야케도(三宅島)에서 진행한 ‘100인의 선생님’ 프로젝트.

선생님과 학생, 가르치는 쪽과 배우는 쪽의 반전. 선택된 인간이 선택한 인간을 지배할 뿐인 구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언제든지 주종은 역전(=민주주의) 한다. 이러한 본질이 이 프로그램 안을 관철하고 있다.

공터를 밭으로 전환하여 그 중앙에 지하 스튜디오를 만든 후, 전시회 기간 중 두더지 차림을 한 작가가 지역이나 전시회 관계자를 초청하여 연일 생방송 (Ustream 생중계)을 진행한 ‘모구라 TV (두더지 TV)’ 도 매우 민주주의적인 프로그램이다. 방송국이라는 공공의 공간을 두더지라는 동물의 모습을 빌려 유머와 버튼업성을 전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미디어가 가진 권위성을 벗기고 원점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머(=민주주의)는 카이하츠씨의 1인 민주주의 작품에 뿌리가 되는 재산이다.

세계 제2차 대전 군부가 대두하는 가운데, 전쟁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인 요시모토 타카야키가 던진 말(시)³은 지금도 개인과 민주주의 관계를 가슴 시릴 정도로 생각하게 한다.

혼자로는 견딜 수 없어
많은 사람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혼자서는 항쟁할 수 없어
많은 사람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나의 고독은 거의 극한까지 견딜 수 있다
나의 육체는 거의 가혹에 견딜 수 있다
내가 쓰러진다면 하나의 직접성이 쓰러진다
서로 지지하는 것을 싫어한 반항이 쓰러진다

민주주의란 모두가 손을 잡는 것으로 태어나는 운동체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작품)이 구체적으로 타인을 움직이게 하여, 연쇄반응을 일으켜가는 현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카이하츠 요시아키 1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오가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케다 오사무 (BankART1929 대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초석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토지에 기둥을 설치하여 세우는 작은 간이형식의 건축물 일본의 인기 만화잡지 요시모토 타카야키의 ‘전위를 위한 심편’ 의 일부. (한국에서 번역되었을 가능성 있음)	

One Person Democracy

Yoshiaki Kaihatsu pursues the one single person democracy. It seems that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o be one single person and to pursue the democracy, however, he has been facing the conflicting subjects. While his projects are unfolded with involving many other individuals, at the same time he works alone dispassionately and doesn't intend to create the group work. He continuously embraces the individualness, works with the justice and protests against the authorities. It could be said that this idea was present in Kaihatsu's recent projects in its depth.

Future Post Office, for instance, is a communication program with a future self and friends, in which one can write a letter to anyone including self and the letter is promised to arrive at the addressee in a year later. You can be anxious if you have the same feeling and relationship with yourself and close friends in the future after a year, therefore the letter includes the promising wish for the better future, that is, the democracy idea.

I will deliver your remembrance to yourself of a year later. I will deliver your thoughts to your friends of a year later. The letter will be posted after a year and arrive at future yourself and friends.
Postman Yoshiaki Kaihatsu in 2011

The Politician's House started as an action responding to the situation in Fukushima, and it is to invite 700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House of Councilors to a shanty built in 20km away from Fukushima nuclear reactor. "I was so sad that there existed a place in my country where no one could live anymore", said Kaihatsu and the project's purpose is to remind the representatives in a democratic nation of the reality in situ, that is, the democracy, though he pursued the project alone and honestly. Actually no politician joined but the project was given the good exposure in media including one of the most popular manga, Big Comic Spirits' Oishinbo.

Dailyly Circus is a traveling exhibition moving from west to east in the main island of Japan in the truck fully loaded with the exhibits by different artists. It toured for 150 days during 4 years, while collecting the donations given to the area damaged by the East Japan Great Earthquake. Kaihatsu's persistent sustainability for a demo-

cratic idea is unique, and his one person democracy is outstanding.

100 Teachers project originally happened in Miyake-jima, an isolated small island inTokyo prefecture with the motto : Everybody is a teacher and Everybody a pupil. The teachers and pupils exchange the role and the relationship is reversed. The fixed structure of relations in which the selected people control the rest is far from democracy. Kaihatsu's project embraces free exchange of master-servant roles, that is the essence of democracy.

Mole TV also featured the democratic idea. In the project, Kaihatsu converted the empty lot to a field and built a basement studio in its middle, where he stayed everyday with wearing the mole costume, invited people in the neighborhood and involved in the exhibition and broadcasted the interviews via ustream. Kaihatsu succeeded to take off the authoritarian face of mass media, and to reveal the grass roots function of the media, emphasizing the humor and bottom up quality. The humor is always present and critical resource in his one person democratic creations.

One of the leading poets in Japan, Ryumei Yoshimoto once created a poem towards people being involved in the war in the pre war time when the military power were prevailing. The words still make us reflect the connection between the individual and democracy :

Though you can't endure alone
Untrue to be hand in hand with many people
Though you can't fight alone
Cowardly to be hand in hand with many people
My loneliness may reach the extremity
My body may reach the limit of cruelty
When I fall down, one single directness falls down
The will against the mutual dependency falls down

Democracy is not the movement organized by a group of people acting under a single motto but the chain reaction where one person's specific action causes other people to act. In this sense, it could be said thatYoshiaki Kaihatsu's one person democracy was genuinely derived from the essence of democracy.

Osamu Ikeda (Director of BankART1929)

開発好明

観客参加型の美術作品を中心に、国内では2006年、2009年、2012年に妻有トリエンナーレ「越後妻有大地の芸術祭」、2014年中房総国際芸術祭 いちはらアート×ミックス に参加。海外では2002年にPS1 MOMA「Dia del Mar/By the Sea」、2004年にヴェネチア・ビエンナーレ第9回国際建築展日本館「おたく：人格＝空間＝都市」、ベルリンのニューナショナルギャラリーにて「berlin-Tokyo/Tokyo-Berlin」など国際的に活動している。また社会参加型のプロジェクトとして2001年から毎年3月9日に開催されている「サンキューアートの日」の企画者であり、2011年の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以降、デイリリーアートサーカスを立ち上げ、現在も東北を中心に巡回展を運営している。現在、横浜のBankART Studio NYKにて東アジアの夢－BankART Life4に11月3日まで出品している。

KAIHATSU Yoshiaki

His recent activities within Japan include Tsumari Art Triennale in 2006,2009 and 2012, as well as Naka-Boso International Art Festival Ichihara Art Mix in 2014, and also internationally participated in PS1 MOMA Dia del Mar/By the Sea in 2002, Venice Biennale 9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Japan pavilion Otaku : Personaly = Space = City in 2004, and Berlin-Tokyo/Tokyo-Berlin in New National Gallery. Many of his works are interactive and specially as a network project, he organized Thank you Art Project on March 9 every year since 2001.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he started Dailyly Art Circus exhibition that mainly has toured the Tohoku district. His ongoing project is happening in BankART Life 4 East Asia Dream in Yokohama until November 3.

카이하츠 요시아키

관객 참여형의 미술작품을 중심으로 일본 국내에서는 2006년, 2009년, 2012년 에치고 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에치고 츠마리 대지의 예술제", 2014년 나카보소(中房総)국제예술제 이치하라 (市原) ARTxMIX에 참가함. 해외에서는 2002년 PS1 MOMA "Dia del Mar/By the Sea", 2004년 베니스 비엔날레 제9회 국제 건축전 일본관 "오타쿠:인격=공간=도시", 베를린 뉴 내셔널 갤러리에서의 "berlin-Tokyo/Tokyo-Berlin"등 국제적으로 활동 중. 또한 사회 참여형 프로젝트로 2001년부터 매년 3월 9일에 개최되는 "상큐¹ 미술의 날"의 기획자이자,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 이후 Daylily Art Circus 를 만들어 지금까지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순회전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요코하마 BankART Studio NYK에서 동아시아의 꿈-BankART Life4에 11월 3일까지 출품 중.

1 개최 날짜인 3월 9일의 숫자, 3은 일본어로 상(さん)이라 발음하며, 9는 큐(きゅう)라 발음 함. 날 짜의 발음의 조합이자 Thank you의 일본식 발음이기도 함. 중의적 표현으로 사용

